

복지상태 문제점 많다

수원캠퍼스 학생복지시설 설문조사

에 관한 문제는 어느때라도 연구 검토되어야 하며 보다는 발견을 위해 학내구성원들은 문제점들을 개선하고자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이러한 까닭에 수원캠퍼스 인권복지위원회와 유네스코 학생회가 지난달 3월7일 부터 25일 까지 재학생을 대상으로 '학내 복지시설에 대한 전반 문제점'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140명의 응답으로 이루어진 이번 조사의 결과 학생들의 대부분이 현복지상태에 불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점, 학생식당, 자판기, 학교 주변 상점의 가격에 대한 학생 16개항의 질문을 대한 답변이 학생 전체를 대표할 수는 없더라도 현 복지상황의 문제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는 제공할 수 있다.

이번 설문조사는 크게 식당, 복지매점의 필요시설, 자판기, 매점 및 학교주변 상점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태도를 살펴본 것이다.

'학내 식당에 대한 문제점'의 경우 "음식값과 종류에 대한 만족도"는 비해서 종류가 적다(59%

값, 양과질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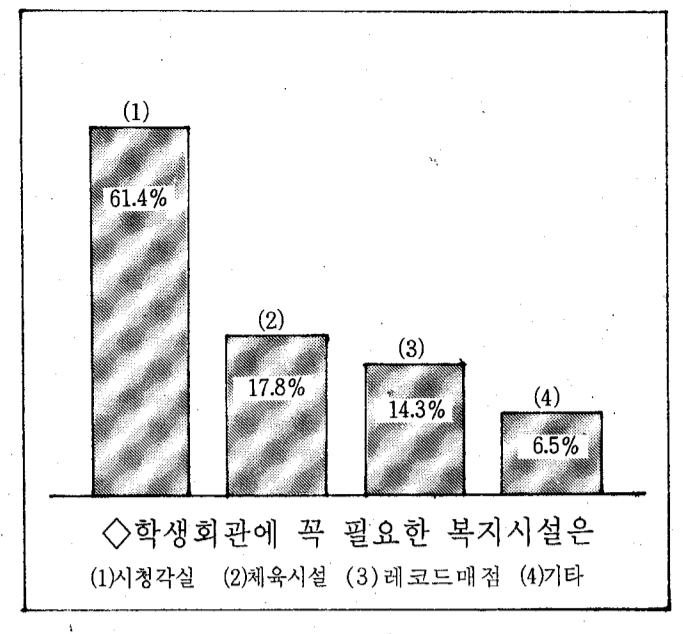
학생들의 의견수렴으로 가격, 위생, 식단을 조절해보자는 '만성적'자를 주장하는 운영자들의 일방적인 행동으로 일관되기에 이에 관한 심각한 문제가 노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학교당국 및 학생들이 식당관계자들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

'매점'에 관한 전반적인 학생들의 인식조사에서 있어 "매점을 이용하는 이유"는 약속장소(52.3%) 대화장소(21.1%)가 응답했으며 "매점 이용시 가장 불편한 점"은 지저분하다(41.4%) 시설의 부족(27.9%) 협소하다(20%)고 하였다.

"현재 매점에서 가장 먼저 고쳐야 할 점"은 불친절(39.9%) 환경개선(34.8%)이라 하였다. 매점에 대한 대부분의 의견은 환경상태의 개선을 최우선적으로 지적하고 있으며 청결한 공간조성을 요청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학생들의 만남과 대화의 장소



한편 "학생회관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협동시설"은 시청각실(61.4%) 체육시설(17.8%) 소리방(테이프 14.3%)이라고 응답하였다.

학생회관과 학내복지매점이 학생들을 위한 생활공간이기에 문구류, 생활필수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다양하게 구매할 수 있는 생활비에 대한 상대적인 평가로 해석할 수 있었다.

다불이 학생복지 시설중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것은 교내 자판기 일 것이다.

"이용시 가장 불편한 점"은 위생상태 불량(47.7%) 맛이없다(23.8%)였고 고장(18.5%)이라 하였으며 "1주일에 몇번이나 이용하는가"에 대해 5~10회(29.3%) 10~20회(45.7%) 이용한다고 하였다.

일주일 평균 10회 이상 자판기를 이용하므로 이의 관리자들은 위생상태와 '질'의 개선을 위해 수시로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학내 복지시설의 운영과 그에 따르는 잉여금의 합리적 관리'에 대해 학생들은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한 대학생활 협동조합 설립'에 대해 필요하다(67.9%) 대 학생생활 협동조합이 무엇인지 모른다(29.3%)고 하였다.

이는 '대학생활 협동조합'이 어떻게 구성될 수 있으며, 구성원은 누구이고, 그 역할은 무엇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않았기에 추후의 논의점으로 남아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상 총16개항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대체적으로 총괄적으로 학내에 산재해 있는 제반 복지시설의 문제점을 지적해주는 것이

식당·매점등에 대한 이용학생 불만 높아

학생들과 학교당국의 건설적 협동이 과제

%)가 가장 많았고 적절하다(20.9%)가 대부분의 답변결과를 차지함으로써 학생들은 다양한 종류의 식당과 가격의 저렴함을 요구하고 있다 하였다.

'반찬의 질과 양'에 관한 질문에 대한 만족한다(32.3%) 가격 높여(16.2%) 질과 양을 높여야 한다(16.2%) 절감해달라(16.2%) 종류를 늘려야한다(47.7%)로 나타났다. "식당이용시 가장 불편한 점"은 불결하다(82.5%)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식당은 1주일에 몇번이나 이용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5~10회(30.7%) 3~4회(65%)이용한다고 하였다.

식당에 관한 이같은 불만족스러운 답변들은 학생들이 음식의

가 되어야 할 매점이 지저분한 공간으로 전락한 것은 이용자인 학생 스스로의 자발적인 개선행동, 관리자의 무책임한 태도가 주원인이 될 것이다.

따라서 많은 학생들의 빈번한 이용, 장소의 협소함, 혼잡함이 조성할지라도 우선적으로 학생 및 매점 운영자들의 자성과 함께 새로운 환경을 이루어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학내복지매점의 이용 및 이용물품'에 대해 "복지매점에 구비해야 할 물품은"문구류(47.1%) 생활필수품(37.9%) 선물품(10.6%)이며 "구매매장 이용시 가장 불편한 점"은 가격이 비싸다(35.7%) 물품이 부족하다(21.4%)고 하였다.

장치의 마련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학교 주변 환경'에 대한 질문의 경우 "학교 상가중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은 오락실(36.9%) 카페(23.8%) 식당(23.0%) 당구장(16.2%)으로 대화와 환경의 문제점을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진정한 학문공간의 조성을 위한 생활환경이 물질만능주의, 오락문화로 전락한 현실에 대한 우려와 변화의 병행과 궁극해될 수 있는 문화의 생활문화 공간에 대한 자성이 또다시 요구된다.

'학교 주변 자취, 하숙, 상점가격'에 대해 적절한(22.3%) 싸다(60.8%) 비싸다(12.8%)고 응답한바 이는 도시권지역 특히 강남일대에서 거처하는 학생들의

생활비에 대한 상대적인 평가로 해석할 수 있었다.

다불이 학생복지 시설중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것은 교내 자판기 일 것이다.

"이용시 가장 불편한 점"은 위생상태 불량(47.7%) 맛이없다(23.8%)였고 고장(18.5%)이라 하였으며 "1주일에 몇번이나 이용하는가"에 대해 5~10회(29.3%) 10~20회(45.7%) 이용한다고 하였다.

일주일 평균 10회 이상 자판기를 이용하므로 이의 관리자들은 위생상태와 '질'의 개선을 위해 수시로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학내 복지시설의 운영과 그에 따르는 잉여금의 합리적 관리'에 대해 학생들은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한 대학생활 협동조합 설립'에 대해 필요하다(67.9%) 대 학생생활 협동조합이 무엇인지 모른다(29.3%)고 하였다.

이는 '대학생활 협동조합'이 어떻게 구성될 수 있으며, 구성원은 누구이고, 그 역할은 무엇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않았기에 추후의 논의점으로 남아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상 총16개항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대체적으로 총괄적으로 학내에 산재해 있는 제반 복지시설의 문제점을 지적해주는 것이

제37호 '고향'교지를 평가한다

겨울잠 거부한 대학인의 결실

제 37호 '고향'교지가 지난 4일 발간됐다. 산뜻한 봄꽃이 만연한 고향골의 풍경만큼이나 새로운 표지로 다가온 교지 '고향'은 그 표지만큼이나 교지 내부 내용이 실렸다.

이제 그 내용을 점검하고 약평함으로써 교지를 보는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계간지로서 특이하게 이전의 형식대로 "특집-국가와 변혁이론"이 실렸다. 현재와 현재를 행되고 있는 사회주의적 변혁과 남한사회 변혁운동의 관점에서 국가의 문제와 계급투쟁의 문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은 돋보인다. 자칫 사회주의적 변혁을 잘못 인식한 나머지 현실 변혁운동의 재문제를 회색화시키는데 대해 체계적인 설명과 정밀한 기행으로 이를 다루고 있다. 이는 세부적으로 '프롤레타리아 국가론'부터 출발하는 마르크스레닌주의 고전적 국가이론에 대한 재조명과 함께 '현시기 변혁론의 현황과 비판적 고찰' 및 '변혁운동의 과제'라는 제목으로 이루어진 것을 비교하여 '당면 통일론'이라는 제목을 지어놓았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현시기 통일론에 대한 체계적인 비판도 불구하고 현재 진행되는 일련의 논의의 논쟁이 성숙하지 않은 단계에서 '대안론 통일론'이라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논거의 불충분 때문에 아쉬운 점이다. 또한 '대안론 통일론'이라는 조급함을 인한 오류를 역으로 낳을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변혁론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출현배경을 충분히 제시하고, 가설을 설정하지 않은 단계에서 평가해봄으로써 역방향 또한 가질 수 있다는 독자들의 오히려의 소지가 있다.

그의 한국사회의 체제문제와 이를 둘러싼 현상들에 대해 실은 '시대론'은 현 사회주의의 모순을 극명하게 밝혀준다. 반면 '시대'를 앞서는 주제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국 사회가 가지는 정치권력과 민중들과의 대립구도에서 파생되는 문제를 좁혀서 봄으로써 그 대안까지도 좁혀서 보게되는 아쉬움을 가진다.

'기획'은 아직까지도 정권의 구체적인 위기대응방식으로 나타나는 허위조직사건을 인혁당, 남민전등 역사적인 사실들을 점검한 것은 현재상황의 인식 폭을 넓어주는 고차적인 조 직사건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며 현재까지도 사노맹, 자민통 등의 사건이 진행되는 시점에 다시한번 사회적 고찰을 해나간

되는 생활문화운동, 예비역협의회 건설 등... "파괴성과 당파성"과 대중성은 서로 떨어진 개념이 절대 아니며 총체적으로 사고되어야만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 현실은 부단히 변화되고 있고 우리들의 이념과 실천 또한 수많은 시행착오 속에서 새롭게 발전해야 한다"

고향교지편집실에서 전하는 말을 통해 이 현역의 재이 만들어진 이유를 알 수 있다.

이한 당면 변혁운동의 과제를 해부하면서, '매체혁신'에 기회들을 포함함으로써 경회인의 일체감, 학술적 성숙강화 현실문제에 대한 확대된 시각을 부여하고 있다. 피상적이거나 각 글의 내용과 '고향'제작진의 기획의도를 점검해 보았다. 이에 대해 종합적인 평가를 하자면 우선 몇가지로 나눌 수 있다.

우선 형식적인 면에서 과거의 교지가 가진 변칙론 논쟁은 명백을 유지하면서도 각기 다양하고 풍부한 형식들을 취했다는 점이다.

둘째, 내용들이 제작진의 현실에 대한 고민이 집적되어 표출된 점을 들 수 있다.

셋째, 대중과의 교호를 통해 대중들이 쉽게 접할 수 있고, 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넓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필자들의 한정성, 대중들에 대한 강변적인 설득, 논리의 선부함을 지적할 수 있는 소위 '고향'교지가 지각할 수 있는 필자를 크게 벗어나지 못한 점은 내용상 그 폐쇄성을 극복할 수 없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또 대중들의 이해와 요구에 정확히 적지 못한 점도 지적될 것이다.

이유는 발전을 위해 다시 극복할 수 있었지만 매체에서의 객관성이 결여된 채 필자의 주관적인 의도까지도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는 즉 부르조아 객관성을 탈피하면서도 여전히 객관성, 과학성은 존재한다는 것이다.

어떻든 한국의 체제로서 또는 잡지로서 '고향37호'를 받은 학생들에게 두꺼운 그들의 노력이 전달되었음을 확인하면서 긴 겨울을 겨울잠을 거부한 대학인의 결실을 맞보게 된다.

이렇게 민족의 민주주의와 분단된 조국의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한 '고향'의 모습도 그것들을 마찰 것이며, 경회인 모두가 스스로의 목소리에 애정을 가질 것이다.

(송보영 기자)

풍부한 형식 통한 소재의 다양화 추구

한정된 필자 선정에 따른 폐쇄적 논리 연전

국가·계급문제 관한 체계적 정리 돋보여

제 37호 '고향'교지가 지난 4일 발간됐다. 산뜻한 봄꽃이 만연한 고향골의 풍경만큼이나 새로운 표지로 다가온 교지 '고향'은 그 표지만큼이나 교지 내부 내용이 실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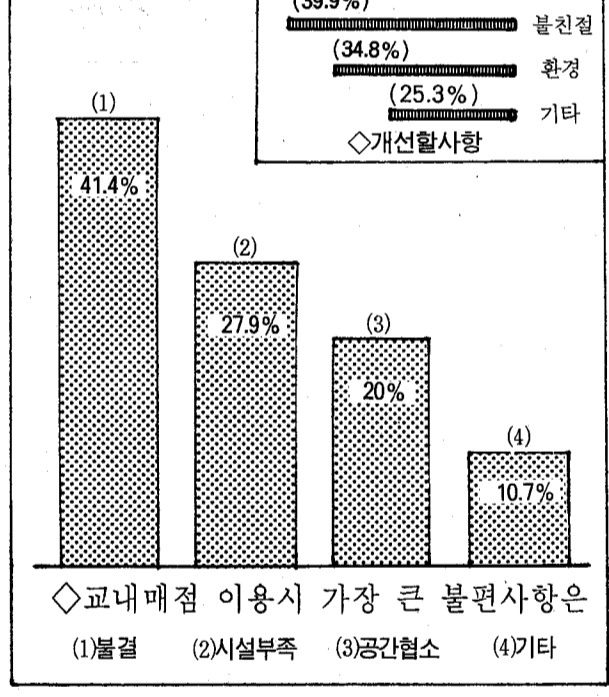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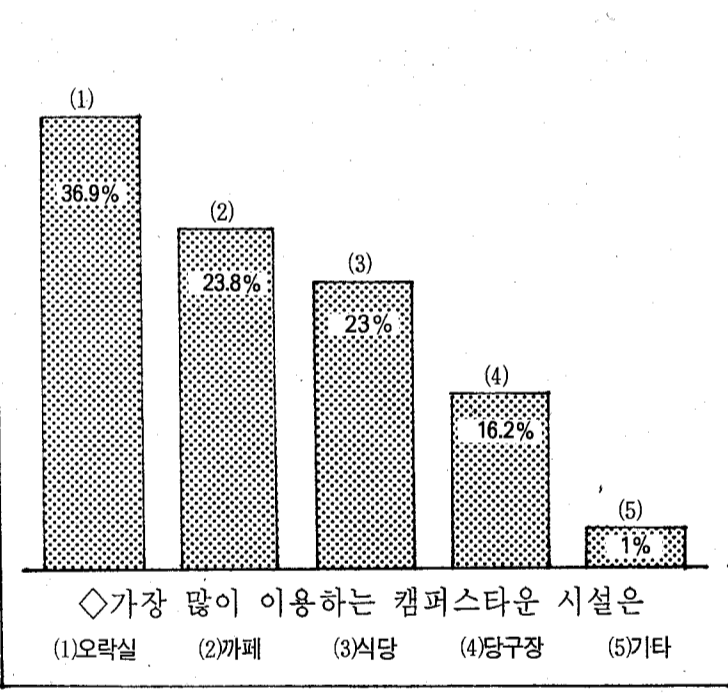
이제 그 내용을 점검하고 약평함으로써 교지를 보는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계간지로서 특이하게 이전의 형식대로 "특집-국가와 변혁이론"이 실렸다. 현재와 현재를 행되고 있는 사회주의적 변혁과 남한사회 변혁운동의 관점에서 국가의 문제와 계급투쟁의 문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은 돋보인다. 자칫 사회주의적 변혁을 잘못 인식한 나머지 현실 변혁운동의 재문제를 회색화시키는데 대해 체계적인 설명과 정밀한 기행으로 이를 다루고 있다. 이는 세부적으로 '프롤레타리아 국가론'부터 출발하는 마르크스레닌주의 고전적 국가이론에 대한 재조명과 함께 '현시기 변혁론의 현황과 비판적 고찰' 및 '변혁운동의 과제'라는 제목으로 이루어진 것을 비교하여 '당면 통일론'이라는 제목을 지어놓았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현시기 통일론에 대한 체계적인 비판도 불구하고 현재 진행되는 일련의 논의의 논쟁이 성숙하지 않은 단계에서 '대안론 통일론'이라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논거의 불충분 때문에 아쉬운 점이다. 또한 '대안론 통일론'이라는 조급함을 인한 오류를 역으로 낳을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변혁론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출현배경을 충분히 제시하고, 가설을 설정하지 않은 단계에서 평가해봄으로써 역방향 또한 가질 수 있다는 독자들의 오히려의 소지가 있다.

그의 한국사회의 체제문제와 이를 둘러싼 현상들에 대해 실은 '시대론'은 현 사회주의의 모순을 극명하게 밝혀준다. 반면 '시대'를 앞서는 주제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국 사회가 가지는 정치권력과 민중들과의 대립구도에서 파생되는 문제를 좁혀서 봄으로써 그 대안까지도 좁혀서 보게되는 아쉬움을 가진다.

'기획'은 아직까지도 정권의 구체적인 위기대응방식으로 나타나는 허위조직사건을 인혁당, 남민전등 역사적인 사실들을 점검한 것은 현재상황의 인식 폭을 넓어주는 고차적인 조 직사건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며 현재까지도 사노맹, 자민통 등의 사건이 진행되는 시점에 다시한번 사회적 고찰을 해나간



日本留學

日本留學에 뜻을 두신 분에게!!

트러스트 학원 TRUST ACADEMY

同德女大의 日語日文學科 / 科代表

만을 통해서

트러스트 학원 가 줄 수 있는 모든 특혜를 드리겠습니다.

받을 수 있는 특혜보다 더 중요한 신뢰 (TRUST) 가 있습니다. 저를 찾아 주시면 기꺼이 봉사 하겠습니다.

— 日語日文學科 / 科代表

서울역 광장 아래 4호선 전철출입구앞 (02) 702-6737/8

VOGABULARY TEST

국내최초의 최근 5년간 출제된 2,240 수료 국내최초의 5대 시형분야별 분류 시험 기출문제 5대 시형분야별 분류 시험 기출문제 5대 시형분야별 분류 시험 기출문제 5대 시형분야별 분류 시험 기출문제

4*6배판 / 426쪽 / 6,000원

英 語 研 究 社 English Study Center 723-1602-735-751

독일어

오스트리아 · 스위스 · 이탈리아 · 스페인

방학영어학원

inlingua®

독일어

어학증명서 독일대학에서 인정

대화·문법·독해

독자·PNDS

이태리어 회화문법

유학생 항공요금안내

인강구어 서울

733-3804, 735-7923

(주) 시사영어사

현대 시사영어사 학원

(舊 현대 외국어 학원)

TOEIC 강좌개설

대학생·성인을 위한 英語·日語·中國語

- TOEFL
- TOEFL L.C.
- Voc. 22,000
- 영자문 연구
- 성문 종합영어
- APKN 정리
- 성문 기본영어
- 표현영어원

개강 5월 1일 수시등록

과교대공민 정문앞 (주)시사영어사 본사 뒤 (273) 4395-7 / 5081-2